

설명절에 가족과 함께 드리는 예배

목 도.....다 같 이

네 하나님여호와께서 돌보아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위에 있느니라.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지난 한해 주님의 은혜로 잘지
내게 하시고 또다른 인도하심 중에 새해를 맞게하시고 함께
모여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이예배를 받으
시며 모인 우리 온가족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아멘!)

찬 송.....377장(통일찬송가449장).....다 같 이
기쁨으로 찬양:235장(여기에 모인우리..)

기 도.....가족 중에서

말씀나눔.....창세기12:1-9.....인 도 자

신앙의 기초를 든든히 합시다(창12:1-9)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아브라함과 관계를 맺으시며 그의 삶을 통
해 교제하시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그런데 본문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관
계를 맺고 교제하시는 과정들을 보면 우리 성도들이 꼭 지녀야할 신앙의 기초들을
잘 제시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기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초를 잘 쌓으면 그 하는 일에 발전이
있고 진보가 있으며 효과도 있고 열매도 있게 됩니다.그러나 기초가 잘 안되어 있
으면 진보가 아니라 퇴보하고 열매는 고사하고 실패를 거듭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 가족이 설명절에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설과 함께 올 한해가 온가족과 함께 예배드리면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했는데 이 한해의 삶에 신앙의 기초가 든든히 세워지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능력있는 인도하심속에 신앙과 삶의 풍성한 열매들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본문에서 말하는 신앙의 기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 제일 먼저 쌓아야 할 신앙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본문 1절 상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관계를 맺고 교체하시기 위해 말씀하셨음을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다가오시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고 또 성도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자주 자신의 신앙경험과 체험등을 강조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신앙생활에 있어 경험과 체험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뿐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말씀이 가라는데까지 가고 말씀이 서라는 데서 서 있어야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고로 신앙생활 할 때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신앙생활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재미가 있고 열매도 맺게 됩니다. 이렇듯, 말씀은 신앙생활에 기준이요 핵심가치입니다. 말씀없는 신앙생활은 위험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더러 주여주여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고 하셨습니다. 신앙생활에서 말씀을 빼면 하나님이 빠지고 하나님이 빠지면 우상이 됩니다.

올 한해 세초부터 세말까지 우리 온 가족이 말씀으로 신앙의 기초를 잘 쌓아서 늘 발전하고 성숙해지며 열매맺는 온전한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2) 두번째 신앙의 기초는 자기를 부인(否認)하는 것입니다.

본문 1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고 하십니다.

이것은 자기가 의지하는 조건, 환경, 상황들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즉,자기를 부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주님도 복음서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네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좃으라” 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 역시 성도가 되려면 자기자신을 부정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왜 성도는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까?

그것은 인간이 죄인이며 연약과 한계의 덩어리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대단하고 조건을 갖추고 있어도 인간은 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에게는 자신의 조건으로는 안되고 하나님과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자기삶에 주인노릇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자기를 책임질 수 있나요? 한시 앞의 일도 모르는 인간아닙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 고백하였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누구나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 로 고백하며 살았습니다.

이는 자기를 부인했다는 것이며 자기삶의 주인과 대안이 주님임을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기부인하지 않으면 주님의 지혜와 능력을 얻지 못합니다

본문에서도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면 새땅을 주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주님으로부터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늘 틈만 나면,자기를 자랑하고 과시하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과 자기를 비교하면서 그들을 무시하고 자기가 최고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바울사도는 자기의 모든 조건들을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고 했습니다.

이런 모습이 진정 자기를 부인하는 아름답고 겸손한 모습일 것입니다.

올한해 우리 온 가족이 자기를 철저히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내는

신앙의 기초를 쌓아서 주님으로부터 세상이 줄 수 없는 변함도,다함도,쇠함도 없는

것들을 얻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 바랍니다.

3)하나더 신앙의 기초는 신앙은 항상 미완성임을 아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성도의 신앙생활에 마침표는 없다는 것입니다.

본문 5절 하반절에 보면, “마침내 가나안땅에 들어갔더라” 고 했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고 했습니다.

분명,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약속하신 땅은 가나안땅이었습니다.

드디어 그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후에 남방땅으로 점점 옮겨갔습니다.

약속의 땅인 가나안땅에 들어갔지만

그는 그곳에 머물지 않고 늘 옮겨 다니면서 신앙의 여정을 계속하였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보면, 마치 신앙의 완성을 이룬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많이 알게 되었다든지, 영적 체험을 크게 했다든지, 큰 사역을 이뤘다든지 하는 등등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완성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럴수록 더 겸손해서, 자신의 연약과 한계를 알고 온전함을 향해 정진해야 합니다.

바울사도는 이런 신앙의 과정을 “이미와 아직”이라는 말로 잘 표현했습니다. 이미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은 이뤄졌지만, 구원의 열매를 이루는 일들이 아직 남았음을 항상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성도가 자기 신앙의 미완성을 인정할 때, 실패하지 않고 항상 신앙의 온전함을 향해 걸어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올 한해 우리 온 가족이 자기의 신앙적 미완성을 인정하는 신앙의 기초를 쌓아서 늘 신앙의 성숙과 진보 그리고 온전함을 이루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바랍니다.

이제 목상을 정리합니다.

올 한해동안 잘 되기도 하고 잘 안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온가족이 신앙의 기초들을 튼튼히 할 때 어떤 경우에도 절망하거나 교만하지 않고 늘 주님이 정해놓으신 꾀대를 향하여 정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인도하심을 날마다 체험하는 우리 온 가족이 되기를 바랍니다.

찬 송.....278장(통일찬송가:220장).....다 같 이
기쁨으로 찬양46장(나 무엇과도...)

축복과 비전나눔.....온가족이 다함께

(집안 어른들은 자녀들에게 축복을 빌어주며
자녀들은 말씀안에서의 비전을 온가족과 함께
나눕니다)

찬 송.....434장(통일찬송가:382장).....다 같 이
기쁨으로 찬양:54장(나의 맘속에)

마 침.....(주 기 도 문).....다 같 이